통계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22.(목) 12:00 배포 2024. 2. 22.(목) 8:30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 71개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 제시 -

<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 ('23년 12월 기준) >

: 개선(51개), : 악화(19개), : 동일(1개)

주. 1) '23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다만,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24년 1월 공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23년 4분기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2) * 표시된 지표는 2년 이상 주기 지표로 '23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2년 12월 기준과 동일

※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개별 지표 값은 지표누리 홈페이지(http://www.index.go.kr)에 게시되어 있음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담당자	사무관	심수진 (042-366-73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연간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제시하는 나침판**으로, 특히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보여준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되었다.

○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

○ 보고서에서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을 보여준다.

※ 지표작성 시점('23년 12월 말)에 따른 유의사항

• '23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된 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함**

* 71개 지표의 최근 통계연도('23년 12월 기준: '23년(11개), '22년(57개), '20년(2개), '19년(1개)

□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을 주제로 하여 측정 프레임워크와 연령별 삶의 질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이슈분석은 삶의 질 관련 이슈를 선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체 원고는 보고서 128~145쪽에 수록

○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한 준 교수, 연세대학교)에서는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의 필요성**과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연령별 삶의 질 특성을 반영한 프레임워크와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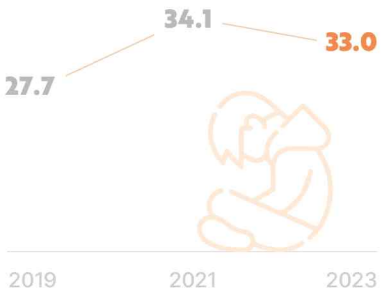
○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권다은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는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연령에 따라 취약한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초석으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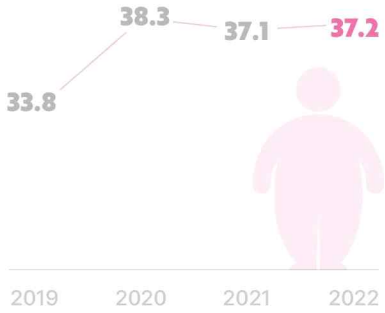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2023

코로나19 시기 악화되었으나 최근 개선된 지표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0%**로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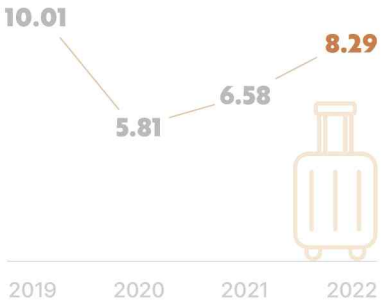


비만율은
2022년 **37.2%**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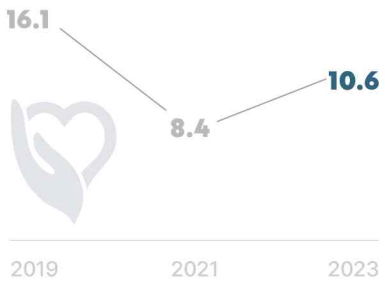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2021년 4.5회에서
2023년 **7.0회**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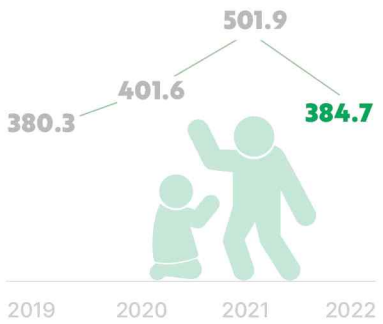
1인당 여행일수는
2022년 **8.29일**로 회복 추세



자원봉사 참여율은
2021년 8.4%에서
2023년 **10.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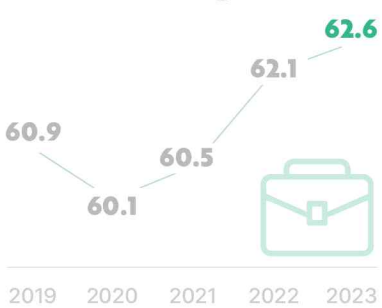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2년에
10만 명당 **384.7건**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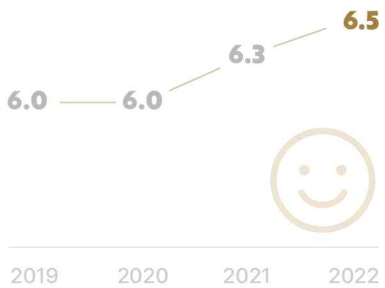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된 지표

고용률은 2020년 감소한 이후
2023년 **62.6%**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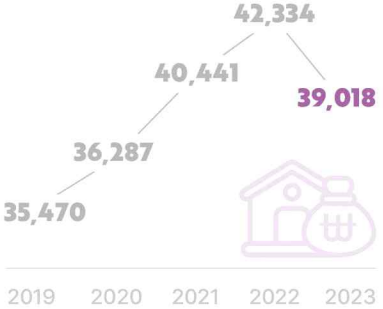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5점**으로 2020년 이후 증가



최근 악화 지표

가구순자산은
2023년에 **39,018만 원**으로 감소



「국민 삶의 질 2023」 주요 결과

1. 전체 요약

업데이트 된 52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 36개, 악화지표 15개**

□ 11개 영역 중 **주관적 웰빙, 환경, 교육, 고용·임금, 여가, 주거 영역 등은 개선** 지표가 많고, **시민참여, 안전, 소득·소비·자산 영역**은 **악화** 지표가 많음

□ 전체 **71개 지표 중 '23년에 업데이트 된 지표는 52개**이며, 전기대비 **개선지표 36개, 악화지표 15개, 동일지표는 1개**임('23년 12월 말 기준)

○ **('23년 수치 반영) 11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은 9개, 악화는 2개임**

- 고용률, 실업률, 사회적 고립도, 자원봉사 참여율, 여가활동 및 영역별 만족도 지표들이 개선*된 반면, 독거노인 비율과 가구순자산 지표는 악화됨

* 개선지표(9개) : 고용률, 실업률, 사회적 고립도, 일자리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자원봉사 참여율

○ **('22년 수치 반영)** 41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 27개, 악화 13개, 동일 1개**임

- 기존에 악화 추세였던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가계부채비율, 자살률은 개선
- 사회단체 참여율, 1인당 여행일수, 가구중위소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은 '21년에 이어 소폭으로 개선됨
- 기대수명, 비만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1인당 국민총소득, 상대적 빈곤율, 정치적 역량감, 기관신뢰도, 대인신뢰도 등은 악화됨

< 업데이트된 52개 지표의 작성연도별 전기대비 개선/악화 현황 >

	계	개선	악화	동일
'23년 통계 자료	11 (100%)	9 (81.8%)	2 (18.2%)	
'22년 통계 자료	41 (100%)	27 (65.9%)	13 (31.7%)	1 (2.4%)
전체	52 (100%)	36 (69.2%)	15 (28.8%)	1 (1.9%)

주: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4년 1월 공표된 '23년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반영함

※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이 상이**하여 '23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전체 **71개 지표 중 52개**이며, 이 중 **'23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11개**이고, **41개가 '22년** 값임

* 71개 지표의 작성주기: 1년주기(45개), 2년주기(23개), 3년주기 이상(3개)

** 71개 지표의 최근 통계연도('23년 12월 기준): '23년(11개), '22년(57개), '20년(2개), '19년(1개)

코로나19 시기 악화되었던 지표들이 **소폭으로 회복 추세**이며, **고용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삶의 만족도 등은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

□ 최근 지표의 변화 추세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시기 악화**되었던 지표들이 **소폭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이전 추세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일부 지표는 '22년에 다시 악화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자원봉사 참여율, 여행일수, 사회단체 참여율** 지표는 코로나19 시기 악화된 이후 소폭 개선되었으나 기존 추세에는 못 미침
- **비만율, 대인신뢰도는 '21년 개선되었으나 '22년 다시 악화**
-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던 **기대수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증가**로 인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여 '22년 82.7세임**(전년대비 -0.9세)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적 고립도(-)	27.7%		34.1%		**33.0%**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횟수(+)	8.4회		4.5회		**7.0회**
자원봉사참여율(+)	16.1%		8.4%		**10.6%**
1인당 여행일수(+)	10.01일	5.81일	6.58일	**8.29일**	
사회단체 참여율(+)	51.8%	46.4%	47.7%	**50.9%**	
비만율(-)	33.8%	38.3%	37.1%	**37.2%**	
대인신뢰도(+)	66.2%	50.6%	59.3%	**54.6%**	
기대수명(+)	83.3세	83.5세	83.6세	**82.7세**	

* 파란색은 전기대비 개선, 빨간색은 전기대비 악화를 뜻함

○ 반면 **고용률, 실업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미세먼지 농도** 등의 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이전보다 더 개선**되었음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률(+)	60.9%	60.1%	60.5%	62.1%	**62.6%**
실업률(-)	3.8%	4.0%	3.7%	2.9%	**2.7%**
대졸자 취업률(+)	67.1%	65.1%	67.7%	**69.6%**	
자살률(-)	26.9명	25.7명	26.0명	**25.2명**	
미세먼지 농도(-)	23.6㎍/m^3	19.4㎍/m^3	18.7㎍/m^3	**17.9㎍/m^3**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과 가계부채비율은 지속적인 악화지표**로 특히 '21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22년에는 전년대비 개선**됨

	2019	2020	2021	2022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80.3건	401.6건	501.9건	**384.7건**
가계부채비율(-)	188.2%	197.8%	209.8%	**203.7%**

2. 영역별 주요 결과

가. 가족·공동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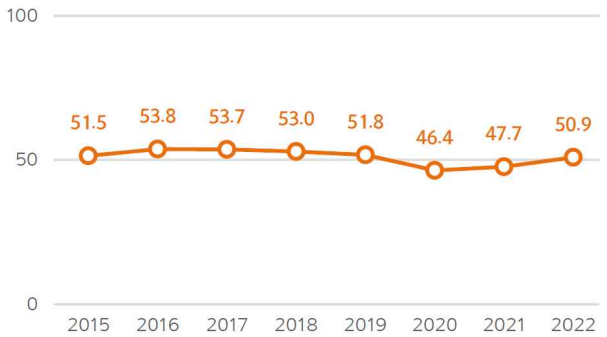
사회단체 참여율은 '22년 50.9%, **사회적 고립도**는 '23년 33.0%로 **전기대비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못함

□ **사회단체 참여율**은 **'20년 46.4%로 감소**('19년 대비 -5.4%p)한 이후 **'21년 47.7%, '22년 50.9%로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19년(51.8%)보다 낮음(보고서 26쪽)

○ **(연령별)** 50대가 58.3%로 가장 높고, 19~29세와 60세 이상에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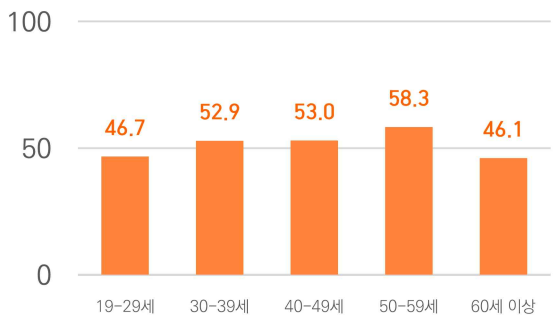
< 사회단체 참여율 (2015~2022년) **>**

(단위: %)



<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2022년) **>**

(단위: %)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9개 사회단체 중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 가끔 활동'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증가한 이후 '23년 33.0%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19년 27.7%)**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임**(보고서 27쪽)

○ **(성별)** 사회적 고립도는 **남자가 35.2%로 여자(31.0%)보다 높고,**

○ **(연령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60세 이상에서 40.7%로 가장 높음**

< 사회적 고립도 (2009~2023년) **>**

(단위: %)

<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2023년) **>**

(단위: %)

주: 1)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일 부탁', '이야기 상대'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나. 건강 영역

기대수명은 **'22년 82.7세**로 전년대비 **0.9세 감소**하였으며,
비만율은 '22년 37.2%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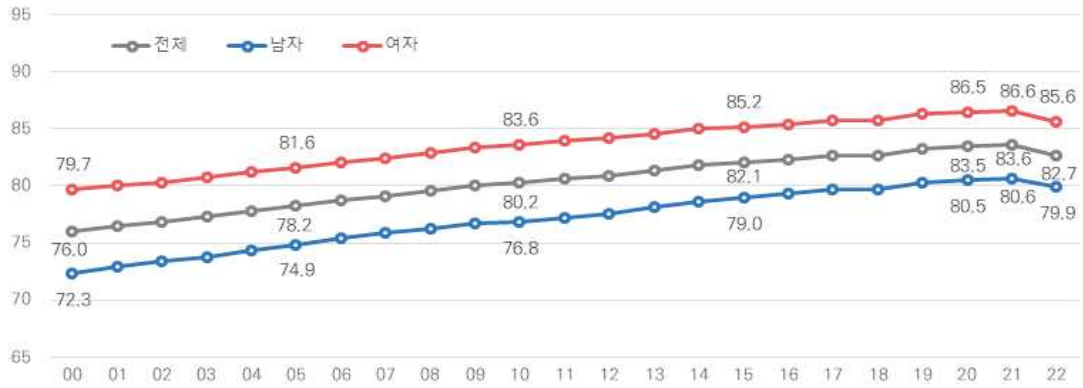
□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0.9세 감소하여 '22년 82.7세임**(보고서 31쪽)

○ 코로나19 시기 미국(-1.8세), 이탈리아(-1.3세), 영국(-1.0세) 등 **다른 나라도 기대수명 감소**

* 기대수명('19년→'20년): 미국(78.8세→77.0세), 스페인(84.0세→82.4세), 이탈리아(83.6세→82.3세), 영국(81.4세→80.4세), 스위스(84.0세→83.1세), 스웨덴(83.2세→82.4세), 프랑스(83.0세→82.3세)

< 기대수명 (2000~2022년) **>**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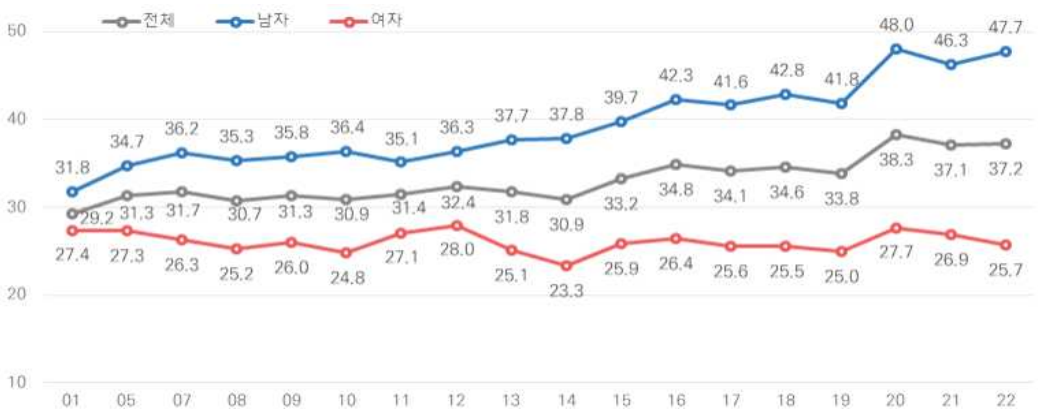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명표

□ **비만율**은 **'20년 38.3%**에서 **'22년 37.2%**로 감소하였으나, '21년보다 0.1%p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전의 35% 미만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임(보고서 35쪽)

○ **(성별)** 여자의 비만율은 **'22년 25.7%로** 코로나19 이전('19년 25.0%)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남자**('19년 41.8%)**는 '22년 47.7%로 여전히 높음**

< 비만율 (2001~2022년) **>**

(단위: %)



주: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임(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다. 고용·임금 및 교육 영역

고용률은 '20년 60.1% → **'23년 62.6%로 증가**하였고,
대학졸업자 취업률도 '20년 65.1% → **'22년 69.6%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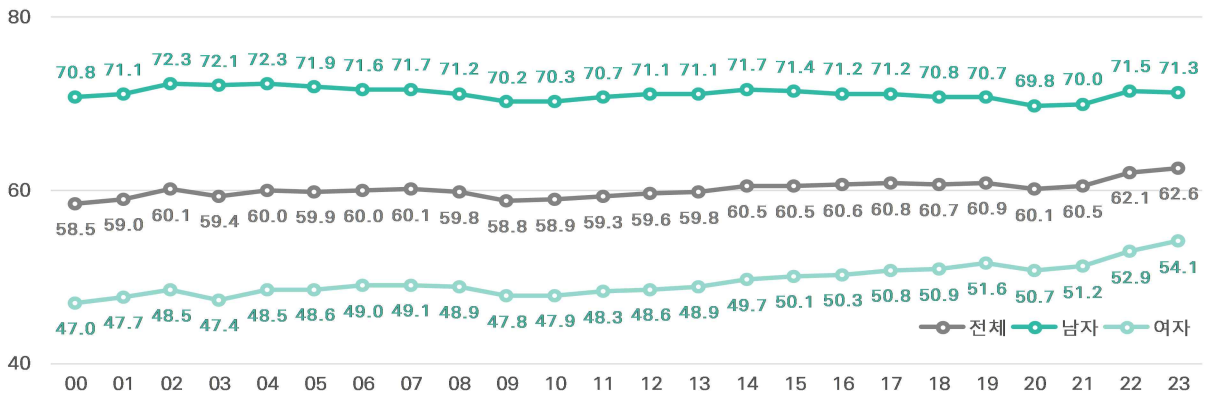
□ **'23년 고용률은 62.6%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여, '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보고서 52~53쪽)

○ **고용률**은 '00년 58.5%에서 60%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 '19년 60.9%에서 **'20년 60.1%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성별)** '23년 기준 **남자 71.3%, 여자 54.1%**로, 특히 **여자**의 경우 '20년 50.7%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용률 (2000~2023년) **>**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학졸업자 취업률** 또한 **'22년 69.6%로 전년대비 1.9%p 증가**(보고서 45쪽)

○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년에 65.1%로 '19년보다 2.0%p 감소하였으나, **'21년 67.7%, '22년 69.6%**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성별)** 여자는 '22년 68.2%로 '20년보다 5.1%p 증가함(남자, 같은 기간 +4.1%p)

< 대학졸업자 취업률 (2011~2022년) **>**

(단위: %)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전체	67.6	67.4	67.5	66.2	67.1	65.1	67.7	69.6
남자	70.7	69.9	69.0	67.8	69.0	67.1	69.5	71.2
여자	64.5	65.1	66.1	64.8	65.2	63.1	66.1	68.2

주: 1)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포함됨
2)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DB를 연계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2년 16.9%로 **전년대비 1.3%p 증가**하여 악화된 반면, **일자리만족도**는 **'23년 35.1%로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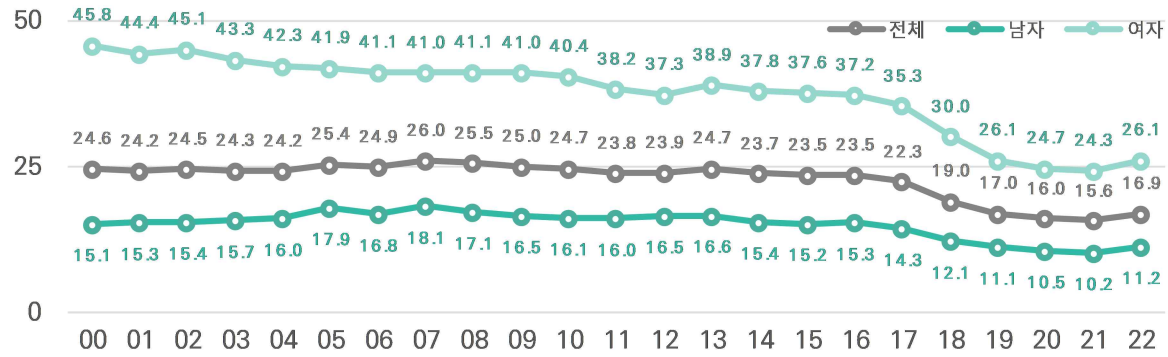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2년 16.9%로 전년대비 1.3%p 증가**(보고서 55쪽)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년 23.5%에서 '18년 19.0%, '21년 15.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어 '22년 16.9%로 증가

○ **(성별)** '22년 기준 **남자 11.2%, 여자 26.1%**로 여자가 두 배 이상 높음

<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0~2022년) **>**

(단위: %)



출처: OECD, *Earnings* (2024년 1월 기준)

□ **일자리만족도**는 **'19년 32.3%에서 '23년 35.1%로 증가 추세**(보고서 57쪽)

○ '17년까지 27% 내외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19년부터 30%를 상회하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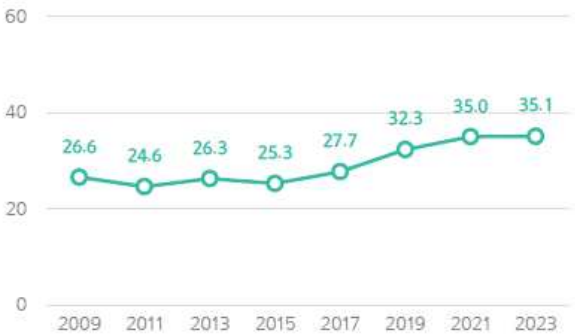
○ **(직업별)** 일자리만족도는 직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전문관리직은 46.9%로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와 기능노무직은 30% 미만으로 낮음

○ **(연령별)** 60대 이상(31.4%)을 제외하면 34~37%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

* 연령별 일자리만족도: 13~19세 35.4%, 20대 37.5%, 30대 34.7%, 40대 36.9%, 50대 34.3%, 60세 이상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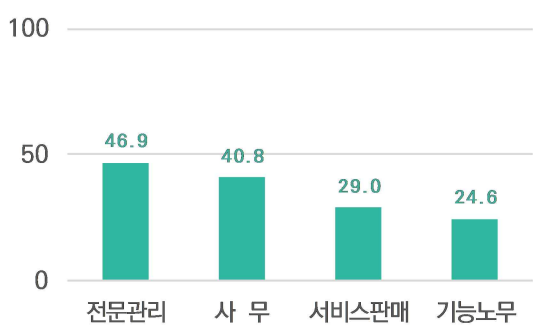
< 일자리만족도 (2009~2023년) **>**

(단위: %)



< 직업별 일자리만족도 (2023년) **>**

(단위: %)



주: (임근근로자 대상) 현재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5점 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라. 소득.소비.자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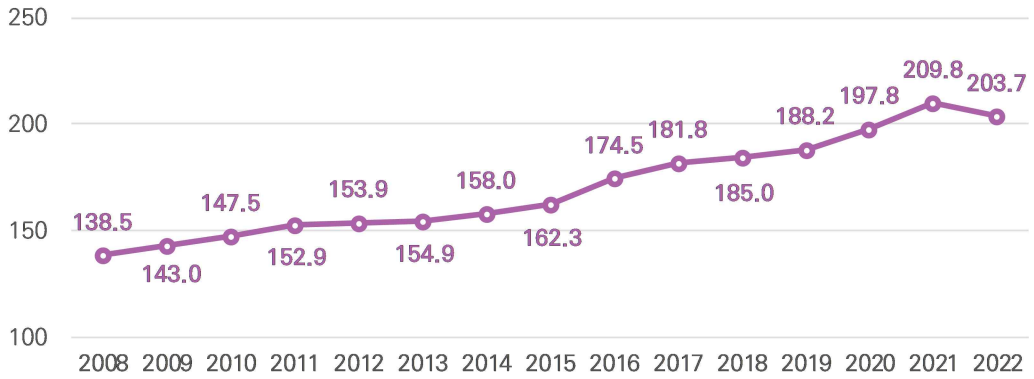
가계부채비율은 '22년 203.7%로 전년대비 6.1%p 하락하였고,
실질금액으로 계산한 가구순자산은 '23년 3억 9천만 원으로 감소

□ **가계부채비율은 '22년 203.7%로 전년대비**(209.8%) **6.1%p 하락**(보고서 66쪽)

○ 가계부채비율은 '08년 138.5%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년 197.8%, '21년 209.8%로 **상승하였으나 '22년에는 전년대비 하락**함

< 가계부채비율 (2008~2022년) **>**

(단위: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23년 12월 기준)

□ **가구순자산은 '23년 3억 9천만 원**(실질금액)**으로 '22년 4억 2천만 원에서 3,316만 원 감소함**(보고서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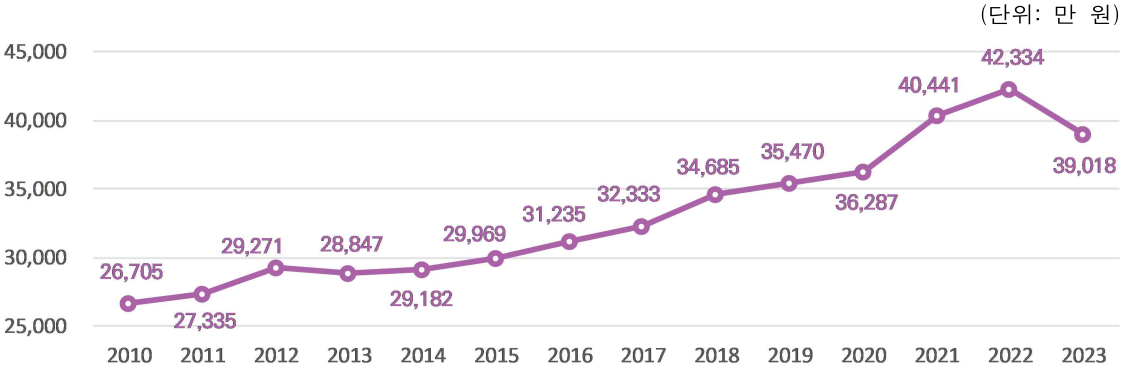
○ 가구순자산은 '10년 이후 **'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1년 4억 원, '22년 4억 2천만 원**에서 '23년 다시 **4억 원 미만으로 감소**함

- 가구순자산의 감소는 자산 중 실물자산가격*(거주주택)의 하락에 기인함

* 전년대비 실물자산은 5.9%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중 거주주택가격의 감소(-10.0%)에 주로 기인함

< 가구순자산 (2010~2023년) **>**

(단위: 만 원)



주: 1) 실질 가구순자산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2) 2017년부터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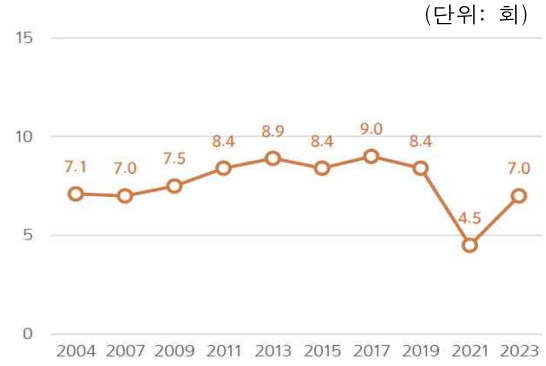
마. 여가 영역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21년 4.5회 → **'23년 7.0회로 증가,**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20년 5.81일 → **'22년 8.29일로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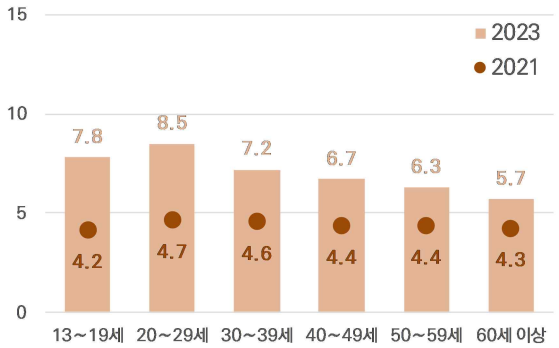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21년 4.5회로 코로나19로 인해 '19년 8.4회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7.0회로 증가**함(보고서 74쪽)

○ **(연령별)** 관람횟수가 적었던 '21년에는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3년에는 **20~29세가 8.5회로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은 5.7회로 차이가 큼**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2004~2023년)>
(단위: 회)



< 연령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단위: 회)



주: 1) 관림횟수는 지난 1년간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2)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20년 5.81일에서 '21년 6.58일, '22년 8.29일로**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10.01일('19년)에는 못 미침**(보고서 75쪽)

○ 반면, 여행경험률은 **'22년 91.8%로 '19년(85.0%)보다 더 높음**

○ **(연령별) 20~30대의 여행일수는 10일 이상**이나, **70세 이상에서는 3.2일**로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크며,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가장 더디게 나타남

< 연령별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 (2019~2022년) >

(단위: %, 일)

	여행 경험률	여행 일수	연령별 여행일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년	85.0	10.01	7.72	11.51	12.10	10.89	10.55	8.15	6.08
2020년	75.5	5.81	3.32	7.58	8.21	6.93	5.81	4.20	1.77
2021년	89.0	6.58	3.82	8.72	9.07	7.81	6.78	4.91	1.92
2022년	91.8	8.29	5.20	10.39	10.96	9.77	8.89	6.61	3.20

주: 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 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바. 주거 영역

주택임대료 비율은 '21년 15.7% → **'22년 16.0%로 소폭 상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1년 4.5% → **'22년 3.9%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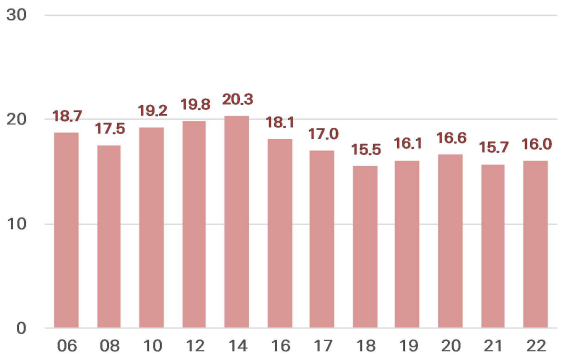
□ **주택임대료 비율**은 **'22년 16.0%로 전년대비 0.3%p 상승**함(보고서 80쪽)

○ 주택임대료 비율은 **'06년 18.7%에서 '14년 20.3%까지 상승**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18년 15.5%로 하락한 이후 정체**

○ **(지역별) '22년 기준 수도권이 18.3%, 광역시 15.0%, 도지역 13.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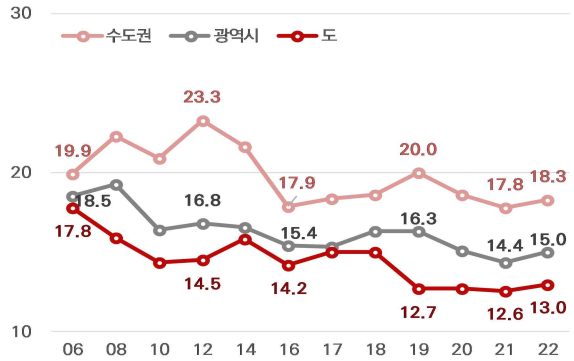
<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22년)>

(단위: %)



< 지역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22년) >

(단위: %)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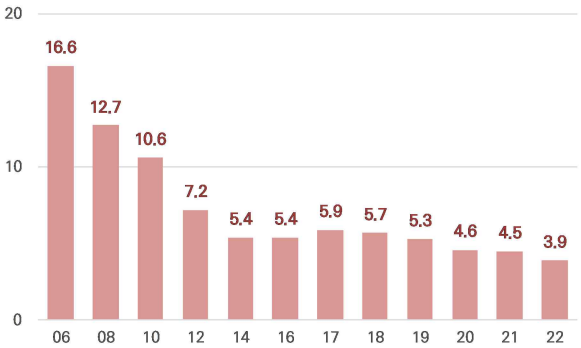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2년 3.9%로 전년대비 0.6%p 감소**(보고서 82쪽)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06년 16.6%에서 '14년 5.4%까지 급격히 감소한 이후 **5% 내외에서 정체**되었으나, **'22년 4% 미만으로 감소**함

○ **(지역별) '22년 수도권이 4.5%로 가장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감소폭은 큼(-1.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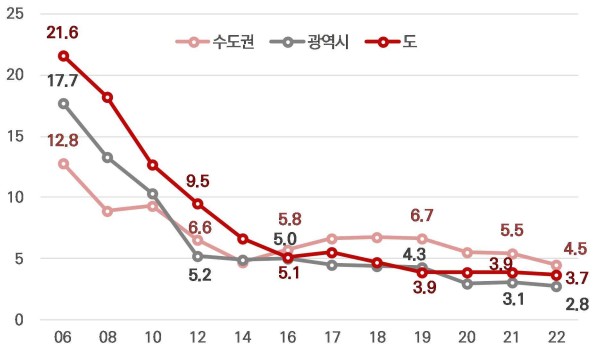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6~2022년)>

(단위: %)



<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단위: %)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사. 안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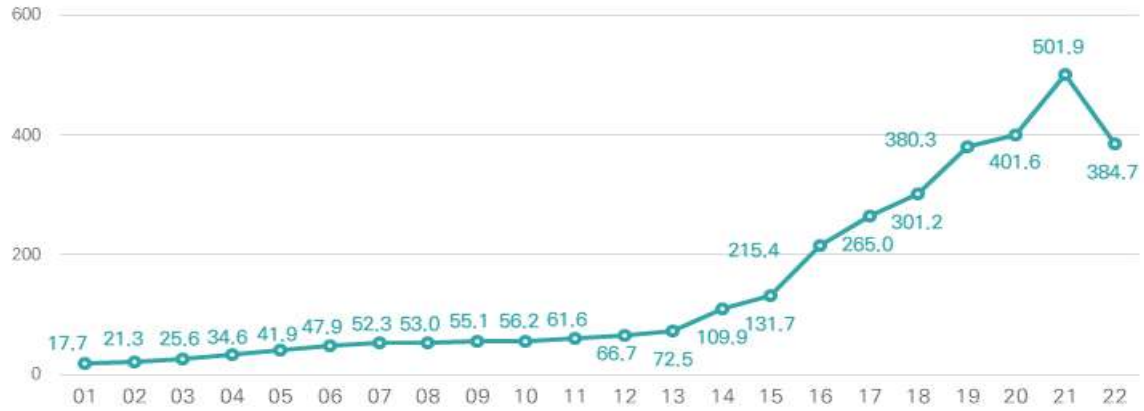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1년 10만 명당 501.9건에서 **'22년 384.7건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짐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시기인 '21년 501.9건**에 달했으나, **'22년 384.7건으로 감소**(보고서 108쪽)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학대 건수의 증가인지 신고 건수의 증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 증가 등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01~2022년) **>**

(단위: 건/10만 명)



주: 1)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2)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건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반면,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으나, '22년 10만 명당 2.3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함(보고서 105쪽)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000~2022년) **>**

(단위: 명/10만 명)

주: 1)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률 ÷ 14세 이하) × 100,000
2) 안전사고: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 사망의 외인 중 자살과 타살을 제외한 사고사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아. 시민참여 영역

기관신뢰도와 대인신뢰도는 모두 '21년 상승한 이후 **'22년 소폭 하락**

□ **대인신뢰도**는 **'22년 54.6%로 전년대비 4.7%p 하락함**(보고서 118쪽)

○ 대인신뢰도는 **'20년에 50.6%로 전년대비 15.6%p 급격히 하락한 이후 '21년 59.3%로 상승**하였지만 '22년에 다시 하락함

○ 코로나19와 함께 낮아진 대인신뢰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연령별) 19~29세는 50.7%**로 가장 낮고, **60세 이상에서 57.4%**로 높음

* 연령별 대인신뢰도: 19~29세 50.7%, 30~39세 55.3%, 40~49세 53.7%, 50~59세 53.8%, 60세 이상 57.4%

□ **기관신뢰도는 '22년 52.8%**로 전년대비 **2.6%p 하락**함(보고서 113쪽)

○ 기관신뢰도는 **'14~'19년까지 39~41%** 수준에서, **'20년 48.3%, '21년 55.4%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나 '22년에는 52.8%로 소폭 하락함**

* 기관신뢰도('22년) : 의료계(76.4%), 교육계(67.7%), 금융기관(67.1%), 지방자치단체(58.8%), 대기업(57.6%), TV/방송사(56.5%), 군대(53.8%), 중앙정부부처(50.0%), 종교계(49.9%), 경찰(49.6%), 시민단체(48.8%), 신문사(47.8%), 법원(47.7%), 검찰(45.1%), 노동조합(43.1%), 국회(24.1%)

< 대인신뢰도 (2013~2022년) **>**

< 기관신뢰도 (2013~2022년) **>**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대인신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기관신뢰도는 16개 기관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1년 8.4% → '23년 10.6%로 증가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3년 10.6%로 '21년 대비 2.2%p 증가**(보고서 117쪽)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03년 14.6%에서 '13년 19.9%로 증가**한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21년에 8.4%로 급격히 감소**함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 및 방문 등이 제한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23년 10.6%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음**

□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3~19세는 27.2%로 가장 높고,**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10% 미만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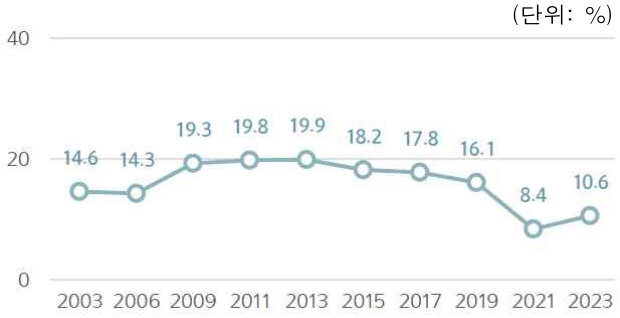
○ 반면, 참여인구 1인당 참여횟수는 **60대 이상에서 12.9회로 가장 높음**

○ **13~19세의 참여율은** '21년(23.3%)보다 증가하였으나 '19년(76.1%)과 비교시 매우 낮아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여전히 제약**이 있음을 보여줌

○ **50대와 60대 이상의 참여율**은 **'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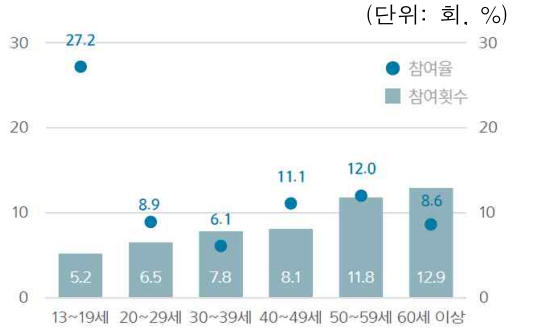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03~2023년) **>**

(단위: %)



<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횟수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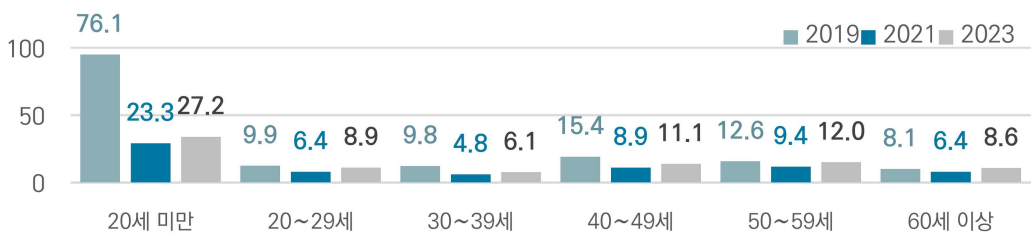
(단위: 회, %)



주: 1)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참여횟수는 참여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19~2023년) **>**

(단위: %)



주: 1)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자. 주관적 웰빙 영역

'22년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전년(6.3점)보다 증가하였고,
부정정서도 3.3점으로 전년(4.0점)대비 감소하여 주관적 웰빙은 개선됨

□ **삶의 만족도는 '22년 6.5점**으로, '13년 5.7점에서 소폭으로 증가 추세이며, **'17년**(6.0점) **이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1년부터 증가함**(보고서 121쪽)

○ **(가구소득별)**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6.0점**으로 평균보다 0.5점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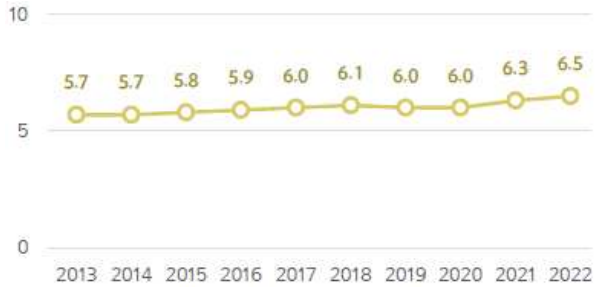
- 100만 원 미만과 100~200만 원 미만은 전년대비 각각 0.5점, 0.4점 증가하여 200만 원 이상보다 증가폭이 커서 소득집단 간 차이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우울과 걱정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년 3.7점에서 '21년 4.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에는 3.3점으로 전년대비 0.7점 감소**함(보고서 124쪽)

○ **(가구소득별)** 부정정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3.5점), '22년에는 3.2~3.5점 사이로 **소득집단 간 차이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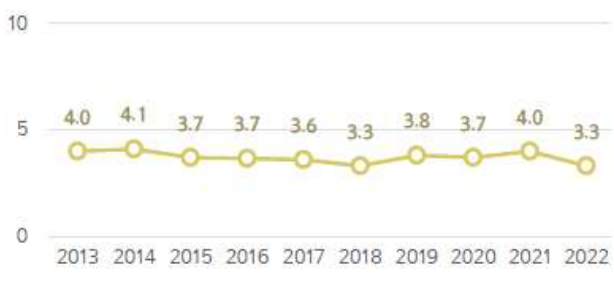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2013~2022년) **>**

(단위: 점/10점)



< 부정정서 (2013~2022년) **>**

(단위: 점/10점)



주: 1)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2) 부정정서는 어제 우울감과 걱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3)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가구소득별 삶의 만족도와 부정정서 (2021~2022년) **>**

(단위: 점/10점)

	전체	가구소득별 삶의 만족도와 부정정서						
		100만 원 미만	100~200 만 원 미만	200~300 만 원 미만	300~400 만 원 미만	400~500 만 원 미만	500~600 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삶의 만족도 (2021년)	**6.3**	**5.5**	**6.0**	6.1	6.3	6.3	6.5	6.5
(2022년)	**6.5**	**6.0**	**6.4**	6.3	6.5	6.5	6.6	6.6
부정정서 (2021년)	**4.0**	**4.3**	4.1	4.2	3.7	3.9	3.9	**4.2**
(2022년)	**3.3**	**3.5**	3.2	3.3	3.3	3.3	3.3	**3.5**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